

2012-10-07 오후예배 특강

성경적인 기도 (2)

김문수

1. 기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오해

- 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쇼핑 카트에 담고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
→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 나. 하나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간절히 매달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
→ 기도 응답은 우리의 정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 다. 열심히 오래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
- 1) 시간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태도로,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하다.
 - 2) 1등 하기 위해 11시 11분에 1분간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 자신의 행운의 숫자가 12라고 믿는 사람
- 라. 허심탄회한 기도?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 1)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주장
 - 2)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 3)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 부리듯이 다름
- 마. 아무런 준비 없는 자연스러운 기도
- 1) 인도자도, 기도 제목도, 순서도 정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해야 한다는 주장
 - 2) “하나님, A자매가 건강이 안 좋다고 합니다.” - “그리고 보니 저는 A자매가 아픈 것도 몰랐네요.” -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게 하시고” - “.....”
 - 3)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안부 인사 주고받고, 정보 교환하는 모임이 되어 버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와 말씀씨를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 쉽다.
- 바. “약속의 말씀”을 주장한다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경구절만 발췌하는 것
요11:4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빌4:13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
모든 계시가 완성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음성이나 직접 계시를 통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자꾸 무언가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면 진짜로 들릴 수가 있다(악한 영의 역사).
구약 시대 왕이나 대언자들의 기도생활을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 적용하는 오류
- 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생각
남북전쟁 당시의 어느 지휘관,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A 자매와 B 자매가 서로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 자. 무엇이건 기도로만 해결하려는 생각 - 마7:7,8
“제게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 그냥 드리면 된다.
“제 아들이 몬스터 딱지 게임을 안 하게 해 주십시오.” - 아들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라.
“이번 수학 시험에 100점 받게 해 주세요.” -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
- 차.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생각
“김 집사님, 이번에 주일학교 교사를 좀 맡아 주십시오.” -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기도나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기 뜻을 보여주신다(욘1:3).
- 카. 기도 응답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자기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것
“내가 말이야 기도했더니...”, “이거 받으려고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2. 기도의 종류

- 가. 찬양: 순수하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기리고 높여 드리는 것
나. 감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것

- 다. 자백: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 라. 중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
- 마. 간구: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

3.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 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진학, 취업, 사업의 성공 등을 위해서 기도한다.
- 나.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마6:32).
- 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마6:33).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
- 라. 복음서에는 병 고침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만, 신약시대(사도행전 이후)에는 그런 기도가 딱 한 번 나온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후12:7-9).
- 마. 신약 시대의 모범적인 기도들: 엡1:17-19, 빌1:9-11, 골1:9-12, 엡6:19

4.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 가.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음
요나 3일 금식기도, 다니엘 21일 작정 기도, 일천번제 새벽기도, 40일 금식기도, 철야기도, 야베스의 기도, 관상 기도
- 나. 관상 기도: 심상 훈련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올려 시각화하고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주장. 카톨릭 수도원 영성훈련과 현대 심리학에 기초. 몰입을 위해 반복되는 주문을 외움. (“오, 주여”, “예수 내 친구” 등) - 마6:7 헛된 반복
- 다. 철야 기도: 기도에 몰입하면 밤을 새울 수도 있으나, 꼭 밤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라. 금식 기도: 금식은 자신의 욕심을 억제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밥을 먹지 않고 죽겠다고 때를 쓰며 하나님을 헐박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행 13:3),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울 때(마17:21) 금식 기도도 필요하다.
- 마. 하나님께 치성 드리기 - 100일 작정 기도, 일천번제 새벽기도
무속 사상의 영향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공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음
- 바. 용한(?) 목사에게 기도 받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다.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5.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 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채워준다고 하셨는데 왜 기도하는가?(마6:8,32)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겔36:36,37).
- 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살전5:17).

6. 기도의 응답

- 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지금의 신약 교회 시대에는 직통 계시, 음성 응답이 없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삼상23:2,4,8)
- 나.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신호등: 푸른 색 (예), 빨간 색 (아니오), 노란 색(기다려)

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 1) 기도하지 않아서(약4:2)
- 2)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할 때(약4:3)
- 3) 의심, 두 마음을 품을 때(약1:6-8)
- 4)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사59:2, 시66:18)
- 5) 형제, 자매들과 불화할 때(마5:23-24)

요약: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라.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